

사회든 인생이든 약간 모자란듯 한게 좋다

1978년 10월 10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 짧다면 짧은 4년간의 미국 수련의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는 데에는 내 나름대로의 큰 꿈이 있었다.

의료의 비인간화, 기계화 등 현대 의료의 절단된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의학의 새로운 전문분야가, 필자가 유학하여 수련한 웨밀리 메디슨(Family Medicine) 즉 가정의학이라 불리는 학문이다. 귀국하기 전 워싱턴에서 있었던 가정의학 학술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필자의 꿈 즉 한국에 가정의학을 창설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자 참석자들은 미국은 100년 걸렸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냐고 했다. 그때 나는 젊은 오기로 10년 이내에 한국에 가정의학을 만들어 놓겠다고 장담했었다.

하여튼 귀국하자마자 웨밀리 메디슨(필자가 후에 한국말로 가정의학이라고 명명함)의 한국에서의 창설이라는 명제를 놓고 고민했었다. 우선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신문 등을 통해 소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필자의 프로필이 그 당시 몇개의 일간지에 소개되었고 또 전문지에는 계속해서 웨밀리 메디슨에 대한 소개를 했다.

그 다음으로 의료계의 반응을 보니, 꼭 땀은 감을 씹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가정의학이라는 학문을 받아 들이고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백안시하고 낮추어보고 또 때로는 슬쩍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나 가정의학 창설을 위한 필자의 목표와 행동은 오직 외길이요 외곬수였다. 따라서 의료계에서 가정의학은 일차의료인데 왜 전문 과목으로 하려 하느냐? 등등 꽤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어떤 선배는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가정의 제도로써 처음에 2년 정도로 해서 시작해라, 어떤 분은 2년짜리 수련 과정으로 하되 엑스텐(출퇴근하는 수련의)처럼 하고 여자들만 뽑아서 훈련시키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한술 더 떠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한쪽 발만 집어 넣고 조금 지나면 두발, 또 조금 지나면 앉고 그 다음에는 약간 기대고 나중에는 완전히 누워버려서 방을 차지하듯이 처음부터 전문의로 하지말고 차근차근히 슬슬 발전시키라는 철학적 충고도 했다.



윤 방 부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그러나 워낙 목숨을 걸고 가정의학 창설을 위해 헌신을 하니 동조하는 동료들도 하나 둘 늘어났고 귀국한지 4년이 지난 1983년 쯤에는 의료계에서 가장 크고 힘이 있는 단체인 대한가정의학회의 위상이 만들어졌다. 이 조직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걸고 가정의학을 통한 의료의 이상형을 추구하기 위해, 회원수를 늘리고 지회를 설치하고 의사 연수교육의 붐을 일으키는 등 가정의학이 전문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 교육적인 면, 행정적인 면 등에서 동분서주했다.

그런데 하루는 의사 단체로부터 가정의학 연수교육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공문의 경위를 알아보니, 어느 누군가가 연수교육을 통하여 가정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보장하고 있으니 불순한 연수교육을 중단케 해야 한다는 괴문서가 있어서 정부 당국이 의사 단체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과 해명을 위해 정부 당국자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국자 앞에서, 동행한 분이 깨알같이 써간 종이를 들고 읽었더니 다 듣고난 그 당국자는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명언이었다.

그는, “정부로서야 가장 좋은 의료가 배풀어진다니 좋게 생각되나 가정의학만을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고 최상인 것처럼 선전·교육하니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 반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회든 인생이든 약간 모자란듯 한게 결국은 인정받고 또 승리하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튀어서는 결국 얻어맞고 좌절하고 말 것이니, 제 말을 한번 잘 음미하시고 다시 열심히 연수교육을 시작하십시오.”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고, 그 후 “가정의학”의 의미와 선전·교육을 약간 늦추고 한단계 낮추었다. 가정의학이 1986년에 드디어 23번째 전문과목이 되었다. 사람들은 필자가 가정의학의 창시자라는 과찬의 말씀도 하지만, 나는 어려울 때 만났던 그 정부 당국자의 충고가 가장 큰 은혜였다고 생각한다. ㉒